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과 ‘어머니의 이주’를 둘러싼 일상의 담론과 상상력

임성숙\*

**요약** 본 글은 영주귀국이 실시된 후 중년 및 노년층 사할린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일상의 젠더화된 담론과 새로운 상상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2000년부터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집단 영주귀국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4,000명을 넘는 사할린 한인들이 이른바 ‘고향’인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년월일(연령)을 기준으로 귀국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고령자들만이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귀국사업을 통해 한국과 사할린에서 사는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주,’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싸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상상을 하게 되었다. 버림, 부담, 어머니 노릇의 은퇴라는 세 가지 주요 담론을 통해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주를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라는 맥락에서 이주에 대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사할린 한인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연령, 세대간계가 젠더화된 초국가 이주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영주귀국은 이주하는 자와 이주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상의 문화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요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여성, 노년, 일상의 담론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학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인류학, HK연구교수, [sslim@glab.hallym.ac.kr](mailto:sslim@glab.hallym.ac.kr)

## 1.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정부는 2000년 이후 사할린 한인을 위한 집단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000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들은 이른바 그들의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sup>1</sup> 영주귀국은 흔히 식민지와 냉전의 ‘종말’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관점이며 사할린 한인들의 경험은 더 복잡하다. 특히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한된 영주귀국 자격이었다. ‘인도주의’ 수사로 설명되어 실시된 영주귀국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년월일(연령)에 따라 귀국 자격자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귀국을 희망하는 자는 자식과 후손들을 사할린에 두고 귀국해야만 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영주귀국으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이산’을 새로운 비극으로 보고 이별은 이주를 택한 사람들이 귀국의 대가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처럼 묘사하곤 한다. 일부 사할린 한인들도 ‘이산가족’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사할린과 한국에서 비극의 정동이 공명하였다. 연구자도 사할린과 한국을 다니면서 중년 및 고령층 사할린 한인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의 이별은 일상의 화제가 되었던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할린 한인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주귀국에 따르는 ‘이산’의 이야기와 경험 속에서 사할린 한인들이 말하는 부모는 주로 어머니를 의미하며 ‘이별’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주체는 여성들이다.<sup>2</sup> 더 중요하게는 어머니의 이주는 단지 아이<sup>3</sup>들과 떨어져 사

- 1 1970년대에도 예외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사할린 한인이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사할린 한인들은 한국과 소련의 출입국 허락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상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사할린 한인들은 소규모로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나 본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집단 영주귀국 사업의 영향에 대하여 초점을 둔다. 집단 영주귀국 사업이 실시된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정근식·염미경(2000), 임성숙(2021)을 참조.
- 2 남성들이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감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말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사할린 중년 및 고령층 한인들은 육아와 가족의 영역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해 왔으며 남성들은 양육이나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 3 본고에서 노년 및 고령층 사할린 한인들의 ‘자녀’는 성인이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는 사실을 넘어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서 젠더화된 도덕적 담론을 형성시켰고, 이는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귀국이라는 변화에 직면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영주귀국자 뿐만 아니라 영주귀국을 하지 않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도 어머니의 이주에 대한 일상의 담론을 생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담론은 초국가 공간에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담론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이주에 대하여 모순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본 글은 영주귀국의 과정에서 형성된 어머니의 이주,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에 관한 일상의 젠더화된 도덕 담론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sup>4</sup>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어머니가 이주하는 것을 어떠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성은 스스로 어머니의 이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은 여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 상상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본 글은 귀국자의 이주경험 자체보다는 사할린 한인들이 초국가 공간에서 영주귀국을 상상하고 해석하는 복잡한 양상을 초점을 둔다. 그 이유는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서 국경을 넘어 순환되는 영주귀국에 관한 상상력이 이주자와 이주하지 않는 자 개개인의 감정과 행동과 맞물려 영주귀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질문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이 야기한 새로운 '이산가족'의 경험을 비극의 서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본 글은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이별, 단절뿐만 아니라 동시에 결합, 연결을 상상하면서 가까운 타자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이든 어머니(aged mother)로서 어

관계의 측면에서 '아이'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다.

4 본 글에서 담론은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분석으로 대표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식/앎과 권력과 그 효과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발화와 발화행위를 포함한 언어, 문화 실천을 말한다. Fairclough(2003)과 Gergen(2015)이 제시하는 담론과 사회구성주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일상의 발화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담론을 “있는 그대로 세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 세계와는 차이가 나는 가능세계를 드러내면서 투영적이고 상상적이기도 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획과도 연계되는”(Fairclough 2012: 275) 문화실천으로 보고, 영주귀국이라는 사회적 사건과 그에 따른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도덕적 평가를 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영주귀국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귀국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이별과 단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할린 한인들의 애매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감정과 상상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일상의 과정에 주목할 때 그들이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이별의 슬픔과 고통을 강렬하게 느끼고 표출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의 내용은 2008년부터 사할린과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자가 사할린에서 한 달 동안 파일럿 조사를 시작한 2008년은 일종의 과도기였다. 2000년부터 시작한 집단 영주귀국 사업이 확장되어 기존의 '1세'에 한정된 영주귀국 자격이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확대된 시기였으며 많은 고령층 및 중년층 사할린 한인들은 영주귀국을 자신과 무관하지 않는 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귀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할린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영주귀국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사할린에서는 잠시 사할린을 '방문'하는 영주귀국자도 만나면서 귀국자와 귀국하지 않는 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16년, 2017년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사할린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주 후의 삶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글의 주요 연구대상은 60대~90대 초반의 연령인 여성들로 구성되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령 가라후토(樺太)로 이주한 1세와 그들의 후손인 사할린에서 출생한 2세대를 포함한다.<sup>5</sup> 연구자가 만났던 대부분 사할린 한인들은 이미 은퇴하거나 단기, 일시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았다.<sup>6</sup> 그들이 허락하는 한 함께 일상을 지내고 특히 그들과 같

5 본 글에서 1세, 2세는 영주귀국 정책이 실시되면서 행정상 구분된 '1세(귀국자격자)'와 '2세'를 뜻하지 않는다. 사할린 한인들이 주로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1세대, 2세대를 의미한다.

6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고정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집안 일'을 하거나 친척, 지인들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면서 물리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특히 소비에트 세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적인 생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임금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상의 많은 사회적 활동들이 '일'을 포함한다.

은 연령대의 친척, 지인들끼리 만나는 모임에 자주 참가하였다. 이러한 조사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글의 내용에는 구조적 면담이나 공식 인터뷰보다 일상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비구조화된 회화를 통해 얻었던 자료가 반영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동하는 사할린 한인, 그리고 이동 및 순환하는 담론을 따라다니는 다장소 문화기술지 방법(Marcus 1995)과 한 곳에 장기간에 걸쳐 머무르는 조사를 병행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동하는 자와 하지 않는 사할린 한인들이 국경을 넘는 사회적 장(Schiller et al. 1992)을 형성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주를 둘러싸고 새롭게 등장한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영주귀국 배경과 소련/러시아에서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사할린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분출된 구체적인 일상의 담론과 그들 스스로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상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 문화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2. 여성들의 영주귀국 경험

### 1) 일상으로서의 영주귀국

한국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영주귀국은 일제 식민지와 해방 후 냉전으로 인하여 (현재 러시아) 사할린에서 잔류했던 한인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당시 소련 극동지역에 위치하는 사할린 섬의 남부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뒤로부터 제국 일본의 신민들은 일본령 가라후토(樺太)와 그 외 제국권 사이를 이동하였다.<sup>7</sup> 특히 1920년대 이후 가라후토의 기간산업이

7 남사할린이 일본령이 된 후 발생한 인구의 이동에는 남사할린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흐름과 남사할린에서 연해주지역, 홋카이도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향하는 인구의 흐름이 포함되며 이동의 주체는 일본인과 한인 외에도 중국인, 선주민들이 있었다.

기존의 어업에서 탄광업과 제지산업으로 이행되면서 제국 일본의 정치경제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필요한 노동력을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역에서도 동원하였고 당시 한반도 출신자들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남사할린으로 향하였다(三木 2005).

그러나 결국 일본의 제국 팽창과 전쟁 수행을 위해 ‘개발’된 가라후토는 일본의 패망 후 소련 영토로 통합되었다. 제국 일본에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으로 이행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 3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은 ‘긴급송환(緊急送還),’ ‘귀국(引揚げ)’과 같은 형태로 일본으로 귀국하였으나, 제국의 피식민자였던 대부분 한인에게 집단으로 사할린을 출국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sup>8</sup> 그 후 한인들은 해방은 커녕 동북아시아의 냉전에 휘말려 새로운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시기 한국과 일본에서 사할린 한인의 귀국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어<sup>9</sup> 1980년대 말부터는 일본과 한국정부가 사할린 한인문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명목 하에 가족상봉, 고향 일시방문 등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0년 소련과 한국이 국교를 수립한 후 사할린 한인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한일 양 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귀국 사업이 제기된 것이다.

2000년 이후 주로 역사학, 정치학에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온 가운데 최근 인문,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1</sup> 국내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사는 사할린 한인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질적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의 경향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정착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구술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생애사를 수집하는 연구이다. 재외동포를 주변화하는 모국(한국)중심의 시

8 일본인 가운데 산업기술자나 한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패망 후에도 남았다. 또한 극소수의 한인들 중 ‘밀항’의 형태로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자가 있었다. 구체적인 인구의 이동의 실태는 Дин(2014), 中山大將(2012)를 참조.

9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국교 수립을 계기로 소련지역에 남아 있었던 일본인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그 배우자인 한인들이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여 사할린 한인 관련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10 해방 후부터 냉전시기 사할린 한인의 ‘귀환’을 둘러싼 정부 및 국가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연식 외(2018)를 참조.

11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역사학, 정치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방일권(2012)을 참조.

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사할린 한인들의 관점에서 일제 식민지시기와 해방 후, 그리고 냉전시기 그들이 겪었던 국적문제와 그에 대한 생각, 선택, 이야기를 조명하였다. 사할린 한인들은 여러 국경, 국가, 민족과 같은 구조적 권력에 휘말리면서도 생존을 위해 살아온 능동적 주체이자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형성해 온 점을 밝혀내었다(김영순·박봉수 2016; 문현아·박준규 2016; 안미정 2014; 조일동 2015). 아울러 다른 재외동포와 사할린 한인의 생애사를 비교하여 한민족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조일동 2020; 최은영 2020).

둘째로 사회학, 복지학, 정책학적인 관점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고국'이지만 낯선 땅 대한민국에 이주한 노년층 사할린 한인들이 언어, 의료(건강), 법 제도와 같은 영역에서 차이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분석하여 한국사회가 취해야 할 대안적인 정책과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박봉수·손영화 2016; 배수한 2010; 이명수·송경애 2016; 임채완·이소영 2015).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공식문서나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발굴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사할린 한인 개인과 가족의 삶을 조명하였다. 다만 영주귀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그들이 살아 온 삶의 궤적을 식민지와 냉전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민주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그들의 삶이 민족 수난의 서사로 수렴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영주귀국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경우 귀국자의 이주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국경 너머의 사할린에 사는 한인들의 존재와 그들과 영주귀국의 관계 등 영주귀국의 초국가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본 글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사할린 한인들이 식민지와 냉전이라는 정치적 구조에 '대응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 그리고 영주귀국을 이주자의 새로운 문화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귀국자와 사할린에서 사는 한인들이 여러 문화실천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상으로서의 영주귀국'을 조명함으로써 사할린 한인의 현재 진행형의 삶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제시하겠다.

## 2) 젠더와 초국가 이주

여성의 초국가 이주현상에 대한 연구는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문제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1980대 말부터 1990년에 걸쳐 확장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여성들은 국경을 넘는 이주의 주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여성의 이주의 동기와 경험은 다양하지만 정부, 사회, 종교집단, 가족들은 여성이 이주하는 것을 가정의 안녕과 돌봄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비난하여 성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서 이탈한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와 같은 젠더 담론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국경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얻어 젠더 규범과 질서에 균열을 낸다(Constable 1999; Keough 2006; Parreñas 2001;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유지를 위한 재생산 활동은 여성의 몫이 되어 여성은 출신지역과 이주한 지역에서 돌봄의 기대와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해 초국가 공간에서 성역할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이주현상을 보면, 사할린 한인들 속에서 이주하는 어머니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존의 여성의 국제이주 연구는 세계화시대 여성이 국경을 넘는 이동이 젠더 관계, 가족, 돌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노동이주에 한정되어 있다. 이주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노동이주와 남겨진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의 경우 노동이 이주의 주된 요인이 아니며 여성들의 연령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기존의 이주의 여성화 연구에서 노년층 여성이 국경을 넘어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삶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부족한 점에서 본 글은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특수성을 제시함으로써 젠더와 이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주의 젠더화 외에도 사할린 한인의 이주를 둘러싼 여성들의 여러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소련/러시아에서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믿음, 그리고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명을 거쳐 새

로운 국민국가를 수립한 소련에서 성 평등과 '여성의 혁명'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소련은 사유재산에 따른 계급적 불평등을 가정의 영역과 연결시켜, 남성(가부장)이 재산을 소유하는 봉건적, 자본주의적 가족제도를 극복할 것을 이념적 목적으로 삼아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집 밖의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함으로써 성 평등을 지향하였다.<sup>12</sup>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인구를 잃고 남성이 없는 가구가 대거 발생하였으며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국가는 가정의 영역에 적극 개입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킬 약속에 그친 스탈린 시대와 달리 니키타 흐루쇼프(H.C. Хрущёв)가 서기장으로 취임 한 후,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이 실시되었다(Ashwin 2000; Bloch 2003; Nakachi 2006a; 2006b; Haney 2002; Rockhill 2010).<sup>13</sup> 그러나 여기서 지원과 보호의 대상은 여성이라기보다 '모성'이었고, 이러한 모성 보호 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은 사회적으로(국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당연히 어머니가 되어 가족과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민의 의무로 여기도록 하였다(Utrata 2015: 32-35).

또한 후기 사회주의시대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면서 주택, 노동,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는 온정주의, 혹은 부권주의(paternalism)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가정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남았고 가정 내 성별 분업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혼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sup>14</sup> 그 외에도 소비에트 시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바람을 피

12 이 장에서는 러시아혁명 후 소련시대 초기 성, 모성, 가족 관련 국가정책이나 성규범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대신 사할린 한인들이 소련사회에 통합된 시기인 1960년대 이후, 이른바 '후기 사회주의시대(the late socialist period)'에 여성, 모성과 관련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13 사회주의시대 소련과 동유럽에서 실제 여성들이 거시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국가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 거부했는지는 세대, 종교, 지역, 민족집단, 가족형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기 사회주의시대 공통적인 특징에 한하여 소개한다.

14 이중은 가정과 집밖의 일을 말하며, 삼중은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정, 집밖의 일, 농사를 의미한다.

우는 행동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게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sup>15</sup>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여성은 아이와 끈끈한 유대관계로 맺어졌고 소비에트 붕괴 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여성의 운명이자 의무라는 인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Utrata 2015: 34-35).<sup>16</sup>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을 보면, 연금자나 할머니들이 가사노동과 가정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sup>17</sup>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젊은 시기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아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는 할머니들이 음식재료를 사고 손주들을 돌보고 젊은 성인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였으며, 사회적 재생산이 “노인화(geriatrized)”(Verdery 1996: 65)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부모노릇의 주체로서 양육, 가사노동, 물질적 지원 등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포함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Utrata 2015: 45-47).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강한 유대 관계로 인식하는 만큼 어머니의 이주를 이에 반하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사할린 한인여성들의 삶을 소련/러시아의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나 구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글에서 등장하는 1세 여성들은 1960~70년대 당시 이미 성인이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부분적으로 한반도의 유교적인 젠더 규범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일찍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며느리로서 시댁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라는 ‘상식’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더불어 여성들에게는 전쟁

15 소련/러시아가 가부장적 사회가 아님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련에서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지배적이었고 남성성, 여성성의 명확한 구분 역시 존재하였다.

16 이와 같은 모성중심의 보호, 지원, 정책과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성들은 가정이나 양육의 영역에서 주변화된다. 특히 남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남성이 어머니노릇을 하면서도 담당하지 못하거나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Kukhlerin 2000).

17 소련/러시아에서 ‘연금자’란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노년층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련에서는 지역과 직종에 따라 노동연금이 지불되는 시기와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은퇴 전에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할린에서 탄광에서 일했던 한인들에 의하면 탄광에서 일한지 10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을 거쳐 낯선 소련사회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살리는 일이 최대의 의무였고 아이들을 “매겨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이 그들 삶의 전체였다.<sup>18</sup> 2세의 경우, 그러한 1세 어머니의 영향, 소련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가족과 민족의 경계를 동일시하는 경향, 소련의 모성을 위한 사회보장과 제도와 같은 요인이 혼합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노릇을 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거시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세대의 경험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이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본 글의 초점을 다시 강조하자면,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시하거나 영주귀국자들의 기억을 통해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획일적이고 거시적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여성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아니다. 본 글이 대상으로 하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는 더 좁다. 영주귀국이 진행되는 특정 시점(a moment)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싸고 초국가 공간에서 사할린 한인 여성들끼리 특정 담론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여성 스스로 어머니의 비/이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고찰할 것이다.

### 3. 어머니의 이주를 둘러싼 담론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서 영주귀국과 관련한 정보는 공식적인 신문이나 잡지가 아닌 일상의 회화, 소문, 농담과 같은 '비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소문을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에게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발신하고 전하는 이야기야 말로 영주귀국에 관한 살아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더불어 사할린 한인들에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직접 영주귀국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감정적 공명(resonance)을 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은 일상의 미디어를 통해 그들

18 1세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젊을 때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은 영주귀국에 관한 화제에 접하면서 일부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주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주(그리고 이주하지 않는 상황)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장은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싼 세 가지 주요 담론—버림, 부담, 어머니노릇의 은퇴—을 소개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어머니와 아이들의 이별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이든 어머니의 이주를 새롭게 상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 1) 버림 담론

사할린 한인들에게 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떠나는 일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로 다가왔다. 자녀를 영주귀국 대사에서 제외한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그 결과 어머니와 아이들이 다른 국가에서 살게 되면서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이별을 ‘버려짐’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감정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연령, 세대, 거주지역, 배우자의 유무, 과거의 경험, (영주귀국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서 이 절에서는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어머니의 이주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할린에 머무르는 것<sup>19</sup>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들의 감정적 갈등을 보겠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연구자가 한국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고령층 사할린 여성들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남성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고 혼자 아파트에서 살거나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놓인 상황을 동물이나 곤충과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사할린에 두고 온 자신의 행위를 ‘비인간’적이며 동물보다도 못했다고 말하곤 했다. 예를 들어 김순덕(86세)은 내게 자주 그녀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나이 30

19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할린에서 사는 고령 및 중년 한인들은 영주귀국 자격이 있으나 이주하지 않기를 선택한 자, 제한적인 자격으로 인해 이주하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주자와 이주하지 않는 자’라는 식으로 대조적으로 묘사할 경우, 이주자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주하지 ‘않는’ 자에게 부정적 시각을 부각시킬 수 있어 머무르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본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주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쓰겠다.

에 사할린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 장남은 성인이 되어 병으로 사망하고 현재 그녀에게 막내아들, 며느리, 손녀가 '아이들'을 의미한다.<sup>20</sup> 김순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할린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는 막내아들과 그녀가 이름을 지어준 손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밖에서 앉아 있는데 개미가 있었어. 개미가 다리 밑에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같이 따라가더라고.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네. 나는 개미만도 못해.

그녀는 평소 밝고 농담도 잘하는 편인데, 아이들을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은 나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생물이 뭘지 알아?” 연구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그저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녀는 “인간이야.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 버리잖아. 얼마나 잔인해.” 여기서 “이렇게”는 그녀와 고령층 영주귀국자를 가리킨다. 그 외에도 모스크바에서 아들가족과 살다가 한국에 2년 전 이주한 여성을 만났을 때 연구자는 한국에서 인사하듯이 몸 건강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힘이 없어 ... 우리는 자식 없이 혼자 훨훨 날아가는 새 마찬가지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이처럼 영주귀국을 한 고령층 여성들은 스스로 비난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두고 한국으로 이주한 행동에 ‘비인간적인 것’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은 사할린에 있는 여성들 속에서도 일상의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고령층 여성의 경우, 영주귀국을 했던 여성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도

20 본 글에서 등장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이름은 가명을 쓴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만나고 면담을 진행한 사람들의 연령은 60대부터 90대 초반이었는데, 연령을 고려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호칭이 여전히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점(정진웅 2011)을 고려하고, 아울러 사할린 한인들 개인의 관점과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친족 호칭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서는 1세대의 경우 서로 한글이름과 일제 식민지시기 사용된 일본이름으로 부르는 반면 1940년대 이후 사할린에서 출생한 2세대의 경우 주로 한글이름과 러시아 이름(별명)을 섞어서 부른다.

저희 아이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사할린에서 고령 한인 여성들이 주말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공동체 활동의 기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할린에서 사는 고령인 한인들에게 주말 모임이 일상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 모임에서 연구자는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여성에게 혹시 한국에 이주할 것을 생각해보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약간 흥분하면서, “전쟁 후에 그렇게 힘들게 젖 주고 키운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어. 한국이 살기 좋다고 어떻게 나 혼자 좋은 생활 할 수 있어?” 연구자는 그 모임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의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고복자(79세)는 (영주귀국자들이) 어떻게, 왜 아이를 두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만 자식들이 나쁜 일 하더라도 내 자식이지, 그렇지?” 라고 했다.

사할린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년층 한인 여성들도 친구들과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나들이를 가는 일상의 만남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버림’을 다소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영주귀국을 했던 여성들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또 다른 세상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였으며, 비판과 부러움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은 귀국자들이 왜 한국으로 이주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이해한다기보다 궁금해 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기도 한다. 평소 만날 때 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류바, 스베타, 나자와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연령 때문에 영주귀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의 한인 친척이나 친구들이 사할린을 떠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다. 류바는 영주귀국자들은 아이들과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간 거 아닐까라고 불쑥 말했고, 이에 나자는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들을 돌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반응을 했다. 이들은 귀국자들은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를 버리고 귀국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사할린을 떠났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사할린에 돌아오고 싶어도 아이들은 이미 어머니를 원하지 않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상상한다. 어머니

와 아이의 이별과 버림의 담론 속에서 이주한 여성은 아이들을 버린 주체이면서도 아이들에게 버림받은(그리고 버림받을) 대상인 것이다.

이처럼 초국가 공간에서 순환되는 담론에 노출되면서 여성 귀국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세대나 연령과 무관하게 그들은 한국에서 감정적인 갈등을 견디어 내면서 살고 있다. 여성 귀국자들은 특히 한국에 이주한 지 첫 2, 3년 동안 아이들이 곁에 없는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할린에 있을 때 보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이 많아, 그럴 때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상기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해가 지는 거 볼 때 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3달 전에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 4명 있는데, 보고 싶어. 전화로 아이들이 ‘마마, 보고 싶다’고 해.” 남편과 함께 2년 전 한국에 귀국한 여성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마다 음식이 안 넘어가. 아이들 생각이 나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내가 역시 어머니인가 바.”

‘버림’ 담론에 참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 귀국을 하면서 겪는 감정적 갈등을 통해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나이든 어머니가 국경을 넘어 아이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을 경험하거나 상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버림’ 담론은 여성 귀국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강렬한 도덕적 비난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모든 사할린 여성들이 항상 어머니의 이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 부담 담론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거나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버림’ 담론이 초국가 공간에서 유포되는 속에서 여성 귀국자들은 그들이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현실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에서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늙은 사람이 아이들처럼 살면 아이들 고생이지”라는 말이었다. 고령인 부모가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으면 아이들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귀

국한 여성들은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또 다른 '부담' 담론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 절에서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에 따르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만들어낸 '부담' 담론과 그 효과에 대하여 주목한다.

우선 다마라의 사례를 통해 '부담' 담론에 미치는 사할린의 일상의 경제생활의 영향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마라는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할린 한인 2세(62세)이며 남편과 같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집 근처에는 40대 중반의 아들과 그 가족(부인과 손주 2명), 그리고 딸과 가족(손주 1명)이 살았다. 이들은 주거공간과 상업용 건물에 난방 부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여름에는 혼자 멀리 떨어진 사할린 북부지역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채굴 현장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한다. 다마라는 항상 아들의 수입과 유치원 선생님인 며느리의 수입으로 아이 두 명을 양육하는 것을 걱정했다. 게다가 딸은 싱글맘으로 10살이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임신하고 일을 못한 상태였다. 다마라와 남편 지마는 이미 은퇴했고 고정적 직업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아들과 그 가족에게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어 답답해하였다.

그 때 마치 다마라 부부에게 영주귀국의 기회가 주어졌다. 다마라는 원래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사할린에서 크게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신에 작아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사할린에서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날마다 사할린의 물가는 올라가고 아이들의 가정은 앞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아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마라는 자신과 지마가 아이들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은 영주귀국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며 여러 동기 가운데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아이들 가족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가 한국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털 짐이 될 것이라는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여성은 귀국한지 10년이 지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일 나가기 전에 밥해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 사람들 다 한국에 간다고 하고 우리 아들이 가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한국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지.

한국에서 4~5년 이상 사는 여성들은 자신의 이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설명을 한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내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일 끝나고 자주 와서 보고 가,” “내가 아플 때 아이들이 와서 봐주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이들을 고생시켜,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사할린에서 체류하면서 아이들이 고령인 어머니를 돌보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그 결과 어머니가 이주를 결정한 사례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귀국자들이 위와 같이 설명하는 행위는, 아이들을 두고 온 자신의 행동과 이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주를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 담론은 제1절에서 언급한 이주하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버림’ 담론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 담론(counter-discourse)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 귀국자들이 ‘부담’ 담론을 통해 자신의 이주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할린에서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이주하지 않기를 선택한 여성들은 귀국자들의 언행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나이 든 부모가 한국에 사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는 부담이라고 비난한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떨어져서 살면 아이들 고생이지. 부모가 아프면 아이들이 한국으로 가야지. [사할린에] 일도 있는데 어떻게 가. 한국 가는 데 비행기 타야하고 얼마나 돈이 들어.” 이렇듯 사할린에 사는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주가 오히려 경제적, 심리적 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들은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결코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귀국자처럼 감정적인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사할린에서 ‘남게 된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고복자는 같은 나이 또래 한인 친구와 지인들이 사할린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자신이 한국으로 가지 않기를 선택한 일에 대하여 자주 되돌아본다. “아이들 옆에 있는 게 좋지. 근데 정말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마침 연구자

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후 그녀는 슬픈 표정을 했다. 그녀가 주말에 한인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알고 아들가족이 감자를 캐러 다차(주말농장)를 다녀왔다고 한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 내가 아들한테 다차 가고 싶다고 말 못하니까 [간다면 아이들이 먼저] 전화를 해줘야지 ...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 절대 몰라.” 김복자는 평소에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했고, 자신이 혼자 한국으로 갈 것을 상상조차 못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든 어머니가 다차에 같이 가고 싶다는 말을 못했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녀온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사할린에 사는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과 떨어져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이든 어머니로서 잘하는 행동인지 고민하게 된다.

사할린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순환되는 ‘부담’ 담론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일부 귀국자들은 자신이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 ‘부담’ 담론을 통해 이에 반하는 의미(counter-meaning)를 부여한다. 다른 여성들은 나이든 부모의 이주가 아이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상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나쁜 고령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상상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젠더화된 사회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싼 또 한 가지 담론을 검토하고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어머니노릇을 새롭게 상상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 3) 어머니 노릇의 은퇴?

한국으로 귀국한 여성들이 자신이 이주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이들과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거리두기(detachment)에 어머니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귀국자인 강옥선(80세)은 10년 전 사할린을 떠났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러시아에 있는 자식들은 다 식구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뭐 걱정 할 거 없어. 우리 손자들도 다 이미 컸는데. 내가 할 게 없

어.”

귀국한 여성들은 한편으로 아이들 두고 왔다는 죄책감을 시달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역할은 끝났다'는 의미를 창출하고 있었다. 앞서 개미와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이야기한 김순덕도 “나 여기[한국] 조용한 데에 좀 쉬러 온 거지, 내 고향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와 발화의 맥락에서 아이와 손주들이 사업이나 학업에서 '큰 일'을 해 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손주들이 “빨간 디플롬을 받았다,<sup>21</sup>” “두개 학교를 끝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큰 장사 하고 있다,” “사장 직을 하고 있다” 등이 그렇다. 이러한 자랑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을 다 키웠고 이미 잘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 귀국자와 달리 사할린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어머니 노릇의 끝을 욕망으로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류바는 남편과 성인 딸 두 명, 손자 한 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주중에는 남편과 딸들이 일하기 때문에 류바는 손자를 유치원까지 마중하러 가고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다. 스베타는 남편, 장남 가족 (며느리와 손녀), 차남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그녀는 식구들이 각자 퇴근할 시간이 달라 저녁 음식을 3, 4번 차린다. 류바는 어느 날 한숨을 쉬면서, “아 이제 손자 보는 거 힘들어”라고 했다. 이에 스베타는 “우리 다 손자도 컸고 아이들도 어른이 됐는데 한국이나 가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 가서 좀 쉬자”고 반응하였다. 사할린 한인 여성들의 국경을 넘는 실제 이주는 사할린에 사는 여성들에게 새롭게 젠더화된 상상과 욕망의 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이든 어머니는 성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에서 물러나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 수 있으며 이른바 어머니 노릇을 ‘은퇴’할 수 있다는 상상, 그리고 ‘은퇴’하고 싶다는 욕망이다.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부담’과 ‘어머니노릇의 은퇴’라는 젠더 담론의 생성과

21 ‘붉은 졸업장(красный диплом)’은 소련/러시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졸업장이다. 연구자가 만났던 고령층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빨간 졸업장,’ ‘빨간 디플롬’이라고 표현하였다.

순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영주귀국과 실제 고령 및 중년층 여성들의 이주가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생각할 때 젠더뿐만 아니라 연령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경학(2016)이 지적하듯 여성(특히 어머니)의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은 이주과정이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sup>22</sup> 사할린 한인 여성들이 어머니노릇의 은퇴를 상상할 수 있는 조건에는 연령도 작용하고 있다. 30대 어머니와 10대 아이들의 이별과 80대 어머니와 50대 아이의 이별은 다르다. 그래서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주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할린과 한국에서 여성들이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싼 담론과 여러 상상은 어머니로서의 인식(a sense of motherhood)이나 어머니 노릇이란 생애 전반에 걸쳐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생애단계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공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나가며

사할린 한인 여성들은 영주귀국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주에 직접, 간접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주귀국은 결코 이별과 이산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사할린과 한국이라는 초국가 공간에서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물리적, 상징적 연결과 함께 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상상한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을 둘러싼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주하는 나, 이주하지 않기를 선택한 나, 이주하고 싶지만 못하는 나의 입장에서 비난의 주체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도

<sup>22</sup> 그 외에도 노년 이주연구는 선진국 출신의 중산층 노년층들이 은퇴 이주하는 사례나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성인 아이들을 따라 이동하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예를 들어 Lamb 2009). 또한 노년층 사람들을 오직 돌봄이라는 영역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름대로 어머니의 이주, 부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선택, 행동, 처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영주귀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들은 나이든 어머니로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영주귀국이란 단순히 국가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사할린 한인들의 이별과 결합에 관한 여러 상상, 감정, 욕망, 담론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귀국을 한 여성들에게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은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현재 영주귀국을 오직 비극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묘사하거나 이해하면, 마치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항상 안정적이며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이 올바르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나아가 가족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상상의 공동체로 확대되어 사람들은 민족이나 국가에 속해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관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본 글은 새로운 가족의 '이산'을 영주귀국자들의 '선택'이자 책임으로 돌리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민족이나 국가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초국가 공간에서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귀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밝혀야 한다. 영주귀국으로 끝난 것이 아닌 현재도 지속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신: 임성숙(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sslim@glab.hallym.ac.kr)

Correspondence: Sung Sook Lim(HK Research Professor,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sslim@glab.hallym.ac.kr)

2022.01.17 접수, 2022.02.03 심사, 2022.02.04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경학, 2016,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본 '조부모노릇(grandparenting)'에 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 노년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8(4), 69-85.
- 김영순·박봉수, 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한국어 교사 경험에 관한 연구, 언어와 문화, 12(4), 55-81.
- 문현아·박준규, 2016, 사할린 디아스포라 한인의 초국적 경험과 의미 분석, 구술사연구, 7(1), 137-186.
- 박봉수·손영화, 2016, 법률용어에 대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인식과 어려움 해결방안, 교육문화연구, 22(5), 405-426.
- 방일권, 2012,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 363-413.
- 배수한, 2010,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거주실태와 개선방향: 부산 정관 신도시 이주자를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13(2), 279-308.
- 안미정, 2014, 부산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이주와 가족, 지역과 역사, 34, 317-359.
- 이명수·송경애, 2016,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건강상태와 자아통합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1), 5-16.
- 이연식 외, 2018,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채륜.
- 임성숙, 2021, 사할린 한인의 초기 영주귀국과 국가·국경·이동성, 제국과 국민국가: 사람·이동·기억, 학고방.
- 임채완·이소영, 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3(1), 145-175.
- 정근식·염미경,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 237-280.
- 정진웅,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조일동, 2015, 영주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조일동, 2020,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1), 1-29.
- 최은영, 2020, 협력적 구술생애사를 통한 이해와 연대: 초국가적 한인의 젠더와 가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1), 191-224.
- 三木理(Miki Osamu), 2005, 1930年代の樺太における石炭業, アジア経済, 46(5), 2-18.
- 中山大将(Nakayama Taisho), 2012, 樺太移民社会の解体と変容戦後サハリンをめぐる移動と運動から, 移民研究年報, 18, 101-119.

- Ashwin, S., 2000, Introduction: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In Ashwin, S., Ed.,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London: Routledge, 1-29.
- Bloch, A., 2003, *Red Ties and Residential Schools: Indigenous Siberians in a Post-Soviet Stat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onstable, N., 1999, At Home but Not at Home: Filipina Narratives of Ambivalent Returns. *Cultural Anthropology*, 14(2), 203-228.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담화분석방법, 김지홍 옮김, 2012, 경진.
- Gergen, K. J., 2015, *An Invitation to Social Construction*, 사회구성주의로의 초대, 한유리 옮김, 2020, 박영스토리.
- Haney, L., 2002, *Inventing the Needy: Gender and the Politics of Welfare in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ough, L. J., 2006, Globalizing 'Postsocialism': Mobile Mothers and Neoliberalism on the Margins of Europe. *Anthropological Quarterly*, 79(3), 431-461.
- Kukhterin, S., 2000, Fathers and Patriarchs 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Russia, in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London: Routledge, 71-89.
- Lamb, S., 2009, *Aging and the Indian Diaspora: Cosmopolitan Families in India and Abroa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arcus, G. E., 1995, Ethnography in/of the World System: The Emergence of Multi-Sited Ethnograph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 95-117.
- Nakachi, M., 2006a, N.S. Khrushchev and the 1944 Soviet Family Law: Politics, Reproduction, and Languag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20(1), 40-68.
- Nakachi, M., 2006b, Population, Politics, and Reproduction: Late Stalinism and its Legacy, in *Late Stalinist Russia: Society between Reconstruction and Reinvention*. London: Routledge, 37-66.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ñas, R. S., 2005, *Children of Global Migration: Transnational Families and Gendered Wo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ckhill, E. K., 2010, *Lost to the State: Family Discontinuity, Social Orphanhood and Residential Care in the Russian Far East*. New York: Berghahn Books.
- Schiller, N. G., Basch, L., and Blanc-Szanton, C.,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In Schiller, N. G., Basch, L., and

Blanc-Szanton, C., Eds.,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4.

Utrata, J., 2015, *Women without Men: Single Mothers and Family Change in the new Rus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Verdery, K., 1996, *What was Socialism, and What Comes Nex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Дин, Ю. И., 2014,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сахалин 한인 디아스포라*, 김종현 옮김, 2020, 선인.

## Everyday Discourses and Imaginations Around Mother's Return Migration Among Older Sakhalin Korean Women

Sung Sook Lim\*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older Sakhalin Korean women make sense of mothers' migration, leaving behind their children on Sakhalin(Russia). Since 2000, Sakhalin Koreans have returned to their so-called homeland, South Korea. However, due to the age-based entitlement of return, it has brought about transnational separation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is paper highlights gendered moral discourses around mothers' migration that older Sakhalin Korean women have produced and circulated. These include everyday discourses of abandonment, burden, and mothers' retirement. Within the context where women's migration is blamed, not only returnee women but also the women who stay on Sakhalin actively create various counter-mean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issues around women's migration are not limited to working age women and small children. Age and life cours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women's discourses and imagination on their transnational migration.

**Keywords** Return Migration, Sakhalin Koreans, Women, Aging, Everyday Discourse

---

\*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Anthropology, HK Research Professor, sslim@glab.hallym.ac.kr